



수아랩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 '수아킷'

인공지능 입힌 SW로 불량품 정교하게 찾아내

제조업 생산의 마지막 단계엔 대부분 불량품을 가려내는 공정이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했다. 이후 컴퓨터가 카메라로 찍은 정상제품 영상과 대조해 불량품을 찾아내는 '머신비전'이 나왔다. 하지만 머신비전에도 한계가 있었다. 불량품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정상제품을 불량품으로 인식하는 일이 많았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수아랩은 이런 단순한 검수 작업을 AI 딥러닝 기술로 해결했다. 송기영 수아랩 대표는 "수아킷"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기존 머신비전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불량품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라며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삼성 LG SK 한화 등 국내 대기업에 수아킷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송기영 수아랩 대표가 제조업 불량 검사 소프트웨어 '수아킷'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설리 기자

수아랩	
설립	2013년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주요 제품	딥러닝 머신비전
특징	제조업 불량 검사 소프트웨어로 비정형, 불규칙적인 불량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

"사람은 사람다운, 기계는 기계다운 일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한 송 대표는 인텔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3년 창업했다. 그는 검사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단순 작업에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사람은 사람다운, 기계는 기계다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했다. AI를 활용해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 AI 기술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었다.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인재가 필요했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간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서울대 연구공원에 있었다.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통해 정상제품과 불량품 이미지 비교 기존 SW보다 신속·정확 검수

태양광·車 등 다양한 산업 적용 국내 대기업과 中·대기업에 판매

그는 "졸업을 앞둔 선우배에게 '대기업과 달리 일하는 재미를 느끼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수아랩엔 서울대 출신 엔지니어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재미있게 일했다. 인제가 모여 신나게 일하니 성과도 났다. 수아킷은 그 결과물이다. 예컨대 스마트폰 공장에서 기존엔 엔지니어가 제품의 흠집 면지 찍힘 등 다양한 결함의 이미지를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다. 수아킷은 정상제품과 수소의 불량품 이미지를 입력하면 스스로 학습해 불량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송 대표는 "기존 머신비전은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과 함께 기존 제품을 일일이 다

시 입력해야 했지만 수아킷은 학습 완료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불러와 추가 학습하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불량품 찾아내
다양한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수아킷 소프트웨어의 강점이다. 기존 머신비전은 이미지가 불규칙하면 불량품을 잡아낼 수 없었다. 수아킷은 이미지가 복잡해도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태양광 인쇄회로기판(PCB) 디스플레이 등 전자·전자지를 비롯해 자동차·식·음료·철강·의약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했다. 국내 삼성 LG SK 한화뿐만 아니라 화웨이 도요타 니콘 등 중국, 일본 기업에도 수출했다.

수아랩은 '국내외 머신비전 분야 선두업체' 'AI 분야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국내 스타트업'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다섯 배 증가했다. 송 대표는 "독일과 일본은 기술력, 한국은 가성비로 승부하는 게 싫었다"며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ju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노비즈기업 디지털 전환·스마트공장 구축 돕겠다"

(기술혁신중소)

조흥래 신임 이노비즈협회장 "기업 공동 연구개발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주도해 나갈 것"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협회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신임 이노비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조흥래 한국도κι메 대표(사진)는 20일 서울 논현동 인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영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화그룹에서 일하다 1998년 한국도κι메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유공압기기, 실린



더, 산업용 첨단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다. 종업원은 약 130명이다. 조 회장은 창의·협업·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강한 이노비즈'를 협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 공동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센서·로봇 등 혁신기술 도입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제품뿐 아니라 기획·개발·생산·서비스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라며 "이노비즈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노비즈기업이 혁신 수출기업군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수출기

업 발굴과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실종되고 그 대신 '재력가' '재산가'로 변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노비즈협회가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언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회원사들이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렇다고 언제까지 문제를만 매달려선 안 되고 혁신성장을 통해 이를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는 이노비즈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세계디자인가구 이사진 초청 디자인진흥원, 세미나 열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세계적인 디자인 단체 세계디자인가구의 이사진을 초청해 미래 디자인을 주제로 22일 세미나를 연다. 세계디자인가구는 1957년 창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디자인 단체다. 디자인진흥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웅진코웨이 등 국내 11개 기업·단체를 비롯해 50여 개국 180여 개 기관·기업·학교가 회원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선 10개국 10여 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한다. 루이자 보키에토 세계디자인가구 회장을 비롯해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부사장), 데이비드 쿠수마 미국 타파웨어 브랜드 부사장 등이 강연한다. 전설리 기자 sjun@hankyung.com

"중소 대통령 내가 적임자"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앞서 준법선거를 다짐했다. 이번 선거에는 원재희(왼쪽부터) 이재광 주대철 김기문 이재한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중소기업 혁신 내걸었지만... 위기감만 부추긴 '중통령' 선거

현장에서

김기문 기자 중소기업부



"혁신과 협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일 열린 제2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내걸린 슬로건이다. 35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을 뽑는 마지막 토론회장은 북적였다. 300여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모였다. 자리가 모자라 서 있는 사람도 100여 명에 달했다.

후보 5명 정책토론회 열려

"인건비 부담 줄여달라" 한복소리 경쟁력 강화방안·비전 제시는 없어

하지만 막상 토론회에서는 혁신의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털어주겠다는 공약만 쏟아졌다. "대기업의 무자비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겠다" "표준원기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쓰도록 전환하겠다" 등이었다.

후보자들은 또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도 있었다.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유권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인 선거이기 때문에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과 협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 보였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답론도 부각되지 않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 속 시원히 답변하는 후보자도 없었다. 대신 중소기업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과 정부로만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2시간이 넘는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중소기업정책이 마련된 이후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는 28일 선출되는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5개 주요 경제단체장에 속하면서 부총리급 의전, 대통령 공식 해외 순방 동행 등 예우를 받는다. 매력적인 자리다. 하지만 좋은 대우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리라 마련이다. 350만 중소기업인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 중 하나 아닐까. mgk@hankyung.com

골프와 문화,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한경 GOLF

최고위 과정 2기

국내 최정상급 레슨 프로 · 최고의 골프장 투어

고덕호

허석호

김영

신나송

배경은

김재은

서희경

김진경

| 신청 및 문의 Tel) 02-360-4049 | 홈페이지) hkgolf.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